

# 여름



김 동 완  
〈문화방송 보도위원〉

여름은 시련의 계절이란 말이 있다. 무더위, 폭우, 태풍 등이 서로 교차하는 계절이 여름이어서 사계절 가운데 날씨의 변화가 가장 심한 계절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계절 외에도 장마철이란 또 하나의 계절이 있어 독특한 여름 날씨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름은 장마철과 한여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1. 장마철

장마철은 기상학적으로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과 냉습한 오호츠크해 고기압세력의 경계면

이 우리나라 부근에 동서로 자리 잡고 있을 때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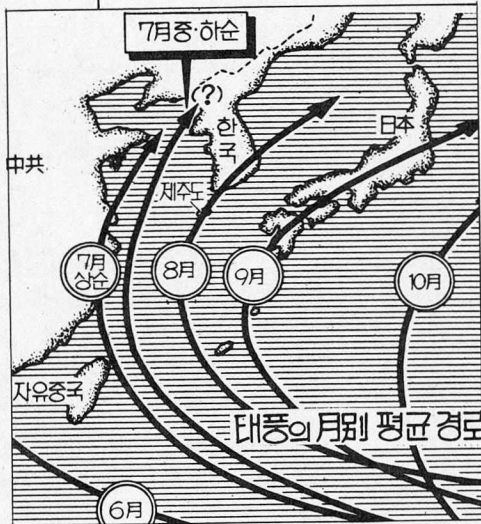
이 양 고기압세력의 경계면을 정체전선 혹은 장마전선이라고 한다.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부근에 걸쳐있을 때는 중국 양자강 유역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통로가 곧 장마전선이 됨으로써 비가 자주 내리고 때로는 큰 비가 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일반에서는 장마철이라면 연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나 그렇지는 않다.

장마전선을 만드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해 고기압세력이 엇비슷해서 우리나라 부근에서 경계면을 이룬 가운데 서로 팽팽히 맞서게 되면 연일 비가 내리게 되지만 두 고기압의 세력 차이가 있을 때는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해상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북부지방으로 밀려 올라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장마철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고 맑은 날씨가 계속 된다.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세력이 강해 북동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선선한 여름날씨가 된다.

그러나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갈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세력이 강해 북태평양으로부터 무더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몹시 무더운 여름날씨가 된다.

이와같이 장마전선은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크게 오르내리는 과정을 거쳐 끝내는 북쪽(만주지방)으로 북상하면서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온다.

대체로 장마기간은 남부지방이 6월 하순부터이며 중부지방은 6월 말경에 시작되어 7월 중순까지 계속되고 7월 하순부터 한여름이 시작된다.

## 2. 한여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게되어 굵은 날씨가 급속히 회복되고 본격적인 여름날씨가 나타난다.

이때는 남동 내지 남서계절풍이 불어오게 되는데 이 계절풍은 겨울의 북서계절풍보다 약하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권내에서는 해륙풍이 잘 나타나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바람이 불고, 한 낮에는 지면의 가열이 심해 뭉게구름이 크게 발달되면서 한줄기 소나기가 더위를 잠시 식혀 주기도 한다.

때로는 기층의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 적란운(소나기구름)이 크게 발달되면서 번개,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려 낙뢰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여름철에 낙뢰현상이 있을 때는 쇠붙이를 멀리하고 주위에서 낮은 곳으로 몸을 숨기도록 해 낙뢰를 피해야겠다. 낙뢰현상은 양전기로 대전된 구름이 지면 가까이에 있을 때 땅의 음전기와 서로 방전되는 현상이므로 큰 나무밑이나 원두막 같이 돌출된 곳은 낙뢰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갑자기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올 때 큰 나무 밑이나 원두막으로 피하는 것은 위험하다.

## 3. 불쾌지수

불쾌지수란 여름철에만 입에 오르내리는 기상용어로서 높은 기온과 습도가 우리들의 정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쾌지수가 70정도이면 열사람중 한 두사람, 75에서는 열사람중 다섯사람, 80내지 그 이상일 때는 열사람 모두가 짜증스런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

불쾌지수가 80을 웃돌 때는 무더위에 신경을 쓰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외곬로만 빠져들어 사고력이 크게 떨어지므로 이해력이 약해져 하찮은 일에도 화를 내기 쉽다.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에는 우발적인 폭력사건이 많아지고 평소 원만하던 대인관계가 깨지기도 해서 우울한 나날을 지내기도 쉽다.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감정관리에 유의해서 항상 느긋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어느 때보다 주의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여러가지 기상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한층 신경을 써야한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불을 많이 취급하지 않을 때라 불조심에 소홀해지기 쉽다. 그러나 여름철, 특히 장마철 같은 때에는 습도가 높아 누전에 따른 화재사

고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매년 가정이나 직장의 전기시설을 꼭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4. 여름휴가

여름철은 여름방학과 직장의 휴가철이 끼여있어서 산과 바다를 피서객으로 붐비게 된다.

매년 맞이하는 여름휴가이지만 막상 휴가를 얻게 될 때면 금년 여름휴가는 산으로 갈까 아니면 바다로 갈까 망설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산이나 바다는 다같이 도시보다 기온이 낮아 우선 시원하다는 것은 같다. 그러나 기상요소들의 변화는 차이가 있다. 우선 산은 기온, 습도, 바람 등이 낮과 밤 사이에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데 비해 바다에서는 소폭으로 변한다.

따라서 평소 변화가 거의 없는 일상 반복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날씨변화폭이 큰 산을 찾아 휴가를 보내는 것이 기분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바다쪽보다 효과적이 되겠고 평소 변화가 심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날씨 변화폭이 적은 바다를 찾아 휴가를 보내는 것이 차분히 마음의 안정을 갖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휴가를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간에 그 곳 기후 특징을 예비식으로 사전에 알아두고 그것을 보다 많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